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솔로몬군도

Solomon Islands

2022년 12월 15일 | 조사역(G3) 김성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9천 km ² 	인구 72만 명 (2022 ^f) 	정치체제 영국식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친서방정책 
GDP 16억 달러 (2022 ^f) 	1인당GDP 2,240달러 (2022 ^f) 	통화단위 Solomon Islands Dollar (SI\$) 	환율(U\$기준) 8.15 (2022 ^f) 

- 솔로몬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 국가임.
- 근로자의 대부분이 농업, 벌목업과 같은 1차 산업군에 종사하는 등 경제구조가 단순하며, 제조업 기반은 대체로 취약한 상황임. 또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여 연간 자연재해 관련 직·간접 비용이 높음.
- 2019년 4월 총선 결과 소가바레(Sogavare) 전 총리가 2014년 이후 4번째로 총리로 선출되었음. 2021년 1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져 인접 국가이자 우호관계를 유지 중인 호주에 군대와 경찰 파견을 요청할 만큼 사회·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 과거 사회 전반에 걸쳐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던 대만과 2019년 9월에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새롭게 수교하며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8. 9. 15 수교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겸임)

주요협정 어업협정('80), 무상원조협정('1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49,494	37,183	7,665	석유제품, 건설광산기계, LPG 등
수입	9,966	11,040	13,191	목재류, 수산가공품, 기타섬유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6건, 35,712천 달러

주요 경제지표

평가분야	지표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경제	경제성장률(%)	2.7	1.7	-3.4	-0.2	-4.5
	GDP 규모(억 달러)	16.2	16.2	15.4	16.3	16.0
	소비자물가상승률(%)	3.5	1.6	3.0	-0.1	3.7
	재정수지/GDP(%)	0.8	-1.6	-2.4	-4.4	-6.2
대외 거래	경상수지(백만 달러)	-47.8	-154.0	-25.1	-78.2	n/a
	경상수지/GDP(%)	-3.0	-9.5	-1.6	-4.8	n/a
	상품수지(백만 달러)	6.5	-36.4	-25.3	-97.2	n/a
	상품수출(백만 달러)	536.0	460.9	378.7	371.2	n/a
	상품수입(백만 달러)	529.4	497.3	404.0	468.5	n/a
외채 상환 능력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580.3	529.1	655.1	651.0	n/a
	총외채(백만 달러)	323.5	350.6	428.9	n/a	n/a
	총외채잔액/총수출(%)	44.7	54.7	88.3	n/a	n/a
	D.S.R.(%)	5.5	2.2	1.8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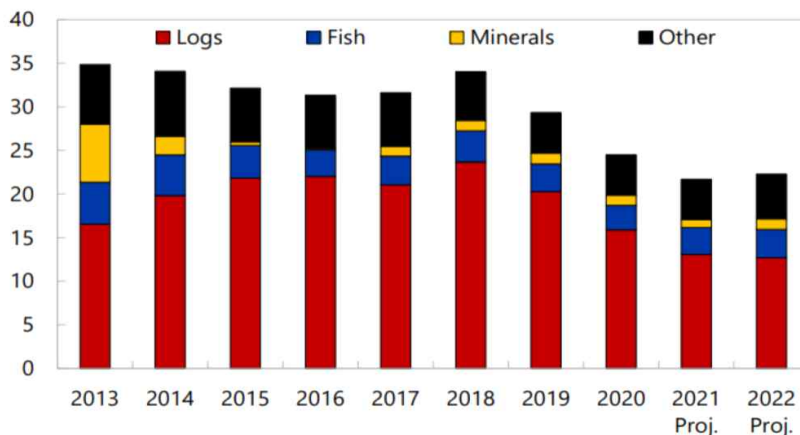
자료: IMF, EIU

구조적취약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다각화 필요

- 솔로몬군도는 국토의 약 80%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시작된 벌목업은 농업과 함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해옴. 1980년대 후반 외국인 소유의 벌목회사와 관습법상 토지소유자들의 벌목업에 대한 상업적 접근이 본격화됨.
- 그 결과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벌채량은 연평균 15% 증가하여 2018년 기준 GDP의 약 10%, 정부 수입의 22% 및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등 솔로몬군도 경제를 사실상 견인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인구의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벌목업에 종사하는 과도한 단일산업 의존도를 보이게 됨. 과도한 벌목으로 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농업, 어업 등 다른 주요 산업분야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 벌목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World Bank에 따르면 솔로몬군도는 지속 가능한 산림벌채율의 17배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벌채율을 기록함. 이로 인해 삼림 황폐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시 수확 가능한 목재의 고갈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IMF는 솔로몬군도가 벌목업을 통해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나, 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그동안 무분별한 벌목으로 황폐해진 산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새로운 산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 생산량을 늘려 식량의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로 잠재력 있는 어업, 광산업 및 관광업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음. 또한 최근에 완성된 해저 케이블은 군도 내 인터넷 연결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솔로몬군도의 GDP 대비 산업별 수출 비중(%)



자료: IMF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구조적취약성

사이클론,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리적 환경

- 솔로몬군도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상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지대가 낮아 사이클론이 닥치면 홍수나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편임.
- 솔로몬군도는 지각 변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함.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22년 11월 22일 수도 호니아라 남서쪽 68km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났음을 밝혔고, 진앙으로부터 300km 범위까지 쓰나미 경보를 내린 바 있음.
- IMF는 솔로몬군도를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 자연재해 데이터베이스 'EM-DAT'에 따르면 1980~2016년 사이 솔로몬군도가 자연재해로 입은 가장 큰 피해는 당시 GDP의 14%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IMF 외채지속가능성 분석보고서(DSA)는 그러한 피해가 2021년에 일어났다고 가정할 시 경제성장률을 2.7%p, 수출을 8.1%p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함.
- 솔로몬군도는 과도한 삼림 벌채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더욱 약화되었음. 이에 따라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및 외채 증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음.

의료시설, 전기, 통신 등 기본 인프라 부족 환경

- 2022년 10월 기준 솔로몬군도 전체 인구의 약 30%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솔로몬군도의 경제여건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음.
-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로 인해 진행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은 내수시장의 침체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솔로몬군도의 강력한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수도인 호니아라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퍼져나갔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호주와 중국의 도움을 받았음.
- 또한 솔로몬군도는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조달한 경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에만 의존, 전 세계적으로도 비싼 수준의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이 전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2025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티나 강 수력발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낮추어 국민들의 전력 접근성이 제고됨은 물론 이를 활용한 긍정적이고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교통, 통신 인프라의 부실은 프로젝트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불충분한 교육시설로 인한 영어 문해력을 갖춘 숙련 노동자의 부족은 해외투자 유치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호니아라와 호주 시드니 사이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는 2019년 8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2월 솔로몬군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였음. 이는 통신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자의 사업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 또한 2019년 6월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는 솔로몬군도의 인프라 개발 10년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총 2억 5천만 호주달러의 보조금 제공 계획을 발표하였음.

성장잠재력

풍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바탕으로 광산업 발전 기대

- 솔로몬군도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니켈의 경우 군도 내 이사벨 주(Isabel Province)에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넓은 니켈 매장지가 분포되어 있음. 니켈과 보크사이트는 채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력 수출 광물이며, 추가적인 광산 개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IHS Markit은 중장기적으로 광산업이 솔로몬군도의 국가경제에서 별목업의 지위를 대체하여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홍수로 인해 2014년 폐쇄되었던 유일한 금 광산인 Gold Ridge 광산의 재개발 사업도 중국 기업의 지원으로 진행 중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곧 금 채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 Gold Ridge 금광은 한때 솔로몬군도의 주요 광산으로, 채굴이 재개된다면 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협정을 통해 Gold Ridge 금광을 되살리고 금광이 위치한 과달카날 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어 FDI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정책성과

Pacific Games 유치 성공에 따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성장

- 솔로몬군도가 2023년으로 예정된 Pacific Games 유치에 성공하면서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해외투자 증진, 관광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의료시설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솔로몬군도는 그동안 자연재해에 취약한 별목업에 의존하는 산업 형태를 보여왔으나, Pacific Games 유치를 지원하는 중국의 다양한 투자는 솔로몬군도에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광업 및 다른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정책과 낮은 백신 접종률로 Pacific Games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닫았던 국경을 개방하며 동 프로젝트들의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 Pacific Games 유치를 위한 시설의 구축을 위해 당초 대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2019년 9월 대만과의 단교 후 중국과 수교하며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함. 중국 기업들은 2020년 10월 Pacific Games 유치를 위한 스포츠 시설 건설을 위해 체결한 8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정치안정

정부의 친중 노선에 대한 반발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발생

- 2021년 11월 소가바레 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 시위로 나타났음. 대만과의 단교 후 공식적으로 중국과 수교한 것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높은 실업률 및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반발하여 발생한 시위는 군도 내 최대 인구 지역인 말라이타에서 시작되어 수도인 호니아라로 이어졌음.
- 시위대가 국회 건물과 경찰서를 공격하며 약탈, 방화 등 폭력 시위로 번졌으며, 특히 호니아라의 차이나타운에 큰 피해를 입혀 정부는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자국민 보호 요청을 받기도 했음.
- 솔로몬군도 정부는 호니아라에 36시간 외출 금지령과 함께 소가바레 총리의 요청에 따른 호주의 경찰 및 군대 파견으로 시위 진압에 성공하였음.
- 소가바레 총리는 자진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발표하였고, 야권 지도자 겸 말라이타 주지사인 다니엘 수이다니는 시위대와 동일한 입장이지만,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본인은 해당 시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였음.

Pacific Games 재정 문제로 인한 총선 연기에 따른 또 다른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

- 솔로몬군도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편으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8번의 총리 교체를 겪어왔음. 소가바레 현 총리는 2019년 4월 총선 및 총리 선출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되었으며, 이전에도 세 번 총리로 당선되어 현재 본인의 네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소가바레 총리는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같은 해 개최되는 Pacific Games로 인한 재정 문제를 이유로 연기하고자 하는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음.
- 이와 같은 결정은 대중의 격렬한 항의와 정치적 반대를 불러일으켰음. 이는 소가바레 총리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반민주적 시도이자 독재 통치를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2021년 11월 발생했던 친중 노선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호주는 솔로몬군도 내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총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소가바레 총리가 이를 거절하며 소가바레 총리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음.

사회안정

반정부 시위로 인한 지역 안정을 위한 노력

- 2021년 말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솔로몬군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호주, 피지, 파푸아뉴기니가 수도 호니아라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약 200여 명의 보안인력을 파견하였음.
- 폭력 시위의 표적이 된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과 중국계 사업체의 보호를 솔로몬군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지 여론 악화 및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비판을 우려하여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았음.

Moody's는 솔로몬군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로 평가

- Moody's는 솔로몬군도가 매우 높은 기후·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무분별한 천연자원 착취에 따른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환경)** 솔로몬군도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징으로 사이클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환경임. 또한 대다수의 경제활동인구가 삼림업, 농업, 어업 등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에 종사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음. 현재 솔로몬군도 경제의 높은 천연자원 의존도와 향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무분별한 삼림 벌채로 인한 국토 황폐화로 인해 기후·자연과 관련된 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 영향은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사회)** 도로, 교육, 전기, 의료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기는 높은 빈곤율과 빈부격차 역시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군도 국가라는 한계로 중앙정부의 행정적 영향력이 약하며 World Bank가 집계하는 World Governance Indicator 지표가 악화되고 순위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배구조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중국과의 안보협정 체결로 최대 원조공여국이자 안보 파트너인 호주와 불편한 관계 지속

- 2022년 4월 솔로몬군도는 중국과의 안보협정 체결을 발표하였음. 솔로몬군도 내 중국 경찰과 군대의 배치 뿐 아니라 중국 해군 함정이 보급 등을 위해 솔로몬군도에 기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안이 공개되자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해군 기지를 만들어 태평양 일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음.
- 중국은 솔로몬군도 내 군대 주둔을 통해 호주, 미국, 뉴질랜드의 해군 및 공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호주 동부 해안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음. 솔로몬군도는 호주의 방어 작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번 안보협정은 태평양 일대의 지역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EIU는 평가하였음.
- 이같은 안보협정은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최대 원조공여국이자 안보 파트너였던 호주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했음. 호주는 2017년 6월 양국 간에 체결된 양자 안보협약에 따라 솔로몬군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파병을 약속한 바 있으며, 2021년 1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 소가바레 총리의 요청에 따라 군대와 경찰을 파병한 바 있음.
- 중국과의 안보협정 초안이 공개되었을 당시 태평양 일대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한 호주 정부는 중국과의 안보협정 추진에 크게 우려한다며 재숙고하라는 제안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으나, 솔로몬군도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음.

미국은 솔로몬군도 주재 대사관 개설 등 태평양 일대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 표명

- 미국은 태평양 일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자 2022년 2월 국무장관이 37년 만에 피지를 방문하고 태평양 국가 정상들을 만나는 등 태평양 일대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음. 또한 미국은 29년 만에 솔로몬군도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태평양 섬 지역 내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기후 위기의 해결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음.
- 미국의 고위급 방문은 솔로몬군도의 중국과의 안보 협정 체결로 인해 다른 태평양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음. 미국 정부는 소가바레 총리로부터 중국과 체결한 안보 협정이 중국의 군사 기지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미 대사관 개설과 함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병원선 파견 및 양자 전략대화 채널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 미국 정부기관)를 통해 태평양 국가들이 다자간 기후금융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EIU는 미국이 더 이상 태평양 일대에서 기존의 동맹국들인 호주와 뉴질랜드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음.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 관련 지표는 걱정 수준이나 향후 관리가 요구됨

- IMF는 솔로몬군도의 외채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2022.1월)에서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인해 솔로몬군도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0년 7%에서 2031년 13.8%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확인 가능한 최신 지표를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11.9개월분(2021년), D.S.R.은 1.8%(2020년)로 외채 관련 지표가 양호함.
- 그러나 벌목업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동시에 Pacific Games 유치 등 관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임. 또한 DSA에 따르면 솔로몬군도는 GDP의 3% 이상 규모 또는 인구의 5%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재해 가능성이 매년 13.5%에 달하는 등 다양한 채무상환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외채상환능력의 관리가 요구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Caa1 (2021.10.)	B3 (2019.10.)

Moody's는 2022년 10월 기존보다 한 단계 하락한 Caa1의 신용등급 부여

- Moody's는 2022년 10월 낮은 공공채무 규모와 주변국들의 원조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 긍정적 요소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벌목업에 의존하는 단순한 경제구조와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 가능성 등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솔로몬군도에 대해 기존 신용등급인 B3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인 Caa1을 부여함.

- 솔로몬군도의 주력 산업인 벌목업은 생산 감소 추세에 있고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환경파괴 유발이 심각하여 광업, 농업, 관광업 등 잠재력 있는 다른 산업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 의회의 총리 불신임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빈발하는 등 정치적 안정성이 낮음. 2019년 선출된 소가바레 총리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2021년 11월 말 반정부 폭력 시위가 발생했음.
- 확인 가능한 외채 관련 최신 지표들이 양호하고 중국, 호주, 미국 등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공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외채 관련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함.
-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과 안보협정 체결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과 미국·호주 사이에서 불안정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